

초등생 과학교육 지원확대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법)는 초등학생들의 공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민관합동 '주니어공학기술교실'이 전국 8개 시·도, 27개 초등학교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7개 기업이 참여해 소속 연구원을 초등학교에 지도교사로 파견, 직접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무상 지원하며, 공학한림원과 함께 지도교사 연수, 교재 및 교사용 매뉴얼 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원한다. 산자부측은 "1학기에 각각 5개 기업과 학교가 참여한 시범실시 결과 호응도가 좋아 2학기부터 대폭 확대 실시키로 했다"며 "이 사업은 기업, 학교, 지역사회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문의 : 산업기술인력과 02-2110-5207)

대한 독성 유전·단백체학회 창립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난 11월 19일 대한 독성 유전·단백체학회는 한·미·일 관계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강당에서 창립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성유전단백체는 유전체학을 기반으로 하는 독성유전체 분야로 생체내 독성학적 변화를 탐지하는 연구분야이다. 환경보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분야에서 활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회는 의약품개발, 환경보건, 식품안전, 수의 법의학 등의 독성학 분야와 독성유전체학의 첨단 연구 분야에서 국내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SCI 등재를 목표로 하겠으며, 논문도 영어로 게재하겠다고 한다. 학회관계자는 '회원들이 학술행사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며 회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KIST 류재천 박사가 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류재천 박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 서상기국회의원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근모)을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법을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림원을 순수한 민간과학 아카데미로서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외국 과학 아카데미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과학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기초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종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법이 통과 되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림원은 제2의 도약을 맞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미래를 위한 과학과 기술' 주제로 대중강연 및 국제 심포지엄 등 열려 -



한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1월 22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18, 19일 양일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제롬 프리드먼 미국 MIT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을 연사로 초청해 대중강연, 국제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와 창립 10주년 기념 사진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04과총과학기술국제학술회의(KCIST-2004) 개최

<유전자변형작물(GMO)>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는 11월 9~1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GM Crops and Foods-Potential, Safety & Environmental Impact」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의 핵

NEWS



심산물인 유전자변형작물(GMO)의 국내외 개발현황과 안전한 실용화에 대한 내용으로 토의를 나누었다. 미국 M. 체이시 교수(일리노이대), 일본 M. 오노 교수(쓰쿠바대) 등 국외전문가 8명과 김호일 박사(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 5명의 국내전문가 초청연사와 포스터 논문 23편이 발표되었다.

〈보건부문 학술회의〉

보건부문의 학술회의는 11월 12~1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of Longevity'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화관련 Biotechnology 등 주제를 갖고 국외에서 초청된 유명팔 교수(U. Texas at St. Antonio), Simon Melov(Buck Institute for Age Research), Jan Vijg(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등 국외전문가 12명과 박상철 교수(서울대학교), 김용선 교수(한림대학교), 황은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등 30명의 국내전문가 초청연사와 13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과학콘텐츠대상에 포항공대 등 선정



순수창작대상 - '로티와 비비의 우주여행' 이미지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시행한 '2004 대한민국 과학콘텐츠 대상' 공모전에서 포항공대의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매체운영부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순수창작 분야 학생부문에선 박지훈(대전과학고 2년)의 '가상적 실험'이, 일반부문은 석영수(부천만화산업지원센터)의 '과학만화 셋별이의 태양계 탐험', 업체부문은 (주)빅아이엔터테인먼트의 '로

티와 비비의 우주여행'이 각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태욱(경기예술고)의 '방귀는 왜 펴까' 등이 차지했다.

대한민국 과학콘텐츠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양질의 과학콘텐츠와 운영매체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범국민 과학마인드 확산운동인 사이언스코리아운동의 과학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개최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매체운영), 교육인적자원부(순수창작 학생), 문화관광부(순수창작 일반), 정보통신부(순수창작 업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학생은 장학금 200만 원, 학교발전기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주최 및 후원기관장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이, 우수상은 주최기관장 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올해 수상작은 12월1일부터 14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된다. 시상식은 12월1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 02-559-3866)

일반인 대상 세종과학기지 체험단 모집

내년 5월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



한국해양연구원(원장 변상경)은 '2005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 극지 체험단' 지원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과학교사 협동 연구 프로그램과 예술가 및

작가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둘로 나누어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야생조류 및 육상 식물 생태학 연구 가능자, 작가, 화가,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등이 지원 가능하다. 남극기지 탐험에 나설 이 체험단은 12월 초에 인원이 확정되며, 2005년 1월 2일부터 25일까지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체험단은 내년 5월 신청자를 받아 같은해 7월말 부터 8월초까지 북극 다산과학기지에 파견될 예정이다.

연구원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극지 과학기지 체험코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는 2006년부터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www.polar.re.kr, 031-400-7791) ㉠

정리_ 이재성 기자 jsl@kofst.or.kr